

45장.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심을 말하는 요셉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왔을 때에 요셉은 자기가 바로 그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밝힌다. 이 부분에서도 주목하여서 볼 점은 요셉이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45:5, 7, 8, 9). 형제들이 그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냈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행하심 아래에서 형들의 잘못이 용서되고 그들이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게 되었다.

1. 요셉이 자기를 밝힘 (45:1-15)

1) 요셉의 울음 (45:1-2)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말하자 요셉은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자신을 알렸다.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형제로서 알린 것이다.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매우 주도면밀하고 냉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요셉이지만 아버지와 형제에 대한 유다의 사랑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였다.

요셉이 크게 울었을 때 모든 애굽 사람과 바로의 집은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바로가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을 보면 총리인 요셉의 집이 바로의 왕궁 바로 곁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요셉의 이야기 (45:3-13)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고 하였지만 형제들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두 번째로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밝혔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것은 형제들과 요셉만 아는 엄청난 비밀인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사실을 들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지만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즉 형제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요셉을 종으로 판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으로 잡혀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들이 의식하고 있던 죄를 요셉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세 번 강조하여 말하였다(45:5, 7, 8).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다. 13절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문장을 다섯 번 사용하였다. 첫째로는, 비록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자신을 그들 앞서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니라고 말하였다(5, 7, 8절). 요셉은 그들의 죄를 이야기할 뿐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형들의 악한 행실의 배후에서 친히 섭리로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힌 것이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라는 사실은 요셉 이야기의 결론에서도 다시 나오는 것으로서 이 부분의 주제다(50:19-21. 참조. 행 7:9-10).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의 죄를 추궁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말하였다. 요셉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 애굽 온 땅의 주(主)로 세우셨다고 말하였다(8, 9절). 사람은 대개 자기의 높아진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자신의 덕을 덧붙이는 경향이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먼저 이야기하였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

구로 자신을 사용하려고 높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 지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다. 특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라고 하였다(45:9).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고 그를 높이셨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요셉은 개인적으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였다(참조. 50:19-21).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개인적인 복수의 마음을 다 버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것이 누구의 생명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7절에서는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말하였다.

구원을 언급한 이 두 구절 사이에 놓인 6절에서는 심한 흉년이 앞으로 5년 더 남아 있음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일차적으로 흉년에서의 구원을 가리킨다(참조. 45:11). 흉년이 언약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파종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흉년이 5년이나 더 지속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을 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애굽에 와서 일단 흉년을 피하고 5년 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뉘앙스가 없고, 오히려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는 기름진 고센 땅에 와서 살 것을 권하였는데, 흉년이 계속된다면 고센 땅이나 다른 곳에 사는 것이나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말은 흉년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서 제안하는 말이다. 또한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말도 ‘다음에’ 그들이 올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의 후손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을 말씀하셨다(15:13-16). 세겔에서 겪은 디나의 사건과 유다가 다말과 혼인한 사건은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에 있으면 동화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주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이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권하였다.

3) 형제들의 화해 (45:14-15)

말을 마친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울었고, 이어서 다른 형제들을 안고 울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판 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용서한다는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형제들과 껴안고 우는 것으로 그의 용서가 더욱 분명히 확인되었다. 전에는 평강의 말도 하지 못하던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 껴안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화해하였다.

2. 바로의 환대 (45:16-20)

바로는 요셉의 울음을 들었는데, 이제 요셉의 울음의 이유를 알고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명하여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오면 애굽에서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하였다.

바로는 말로만 내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하였다. 수레를 보내서 그의 아버지와 자녀와 아내를 애굽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언약한 자들이 걷지 않고 마차를 타고서 오도록 하였다.

바로는 또한 생활 보장을 약속하였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은 가나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아

값다고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두고 내려오라는 뜻이다. 그들이 빈손으로 그냥 오면 바로는 애굽의 좋은 것들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기름진 땅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좋은 가재도구가 마련된 집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3. 요셉의 초청과 야곱의 반응 (45:21-28)

1) 요셉의 초청과 선물들 (45:21-23)

45장에서는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세 번 기록되어 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청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고, 요셉이 이주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각각 기록되었다. 이처럼 세 번 거듭 이야기한 것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옮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요셉은 바로가 이야기한 수레 외에도 길양식을 챙겼고,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 다섯 벌과 은 삼백 개를 주었다. 여기에서 갈아입을 옷을 주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형제들과의 갈등은 채색옷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제 그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에 그들은 새로운 옷을 입었다. 불화와 반목과 죄로 얼룩진 상태를 벗고 새로운 화목의 관계로 들어갔음이 새로운 옷으로 표현되었다. 요셉은 자기의 채색옷을 빼앗았던 형들에게 새로운 옷을 주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다섯 벌의 옷과 은전 300개를 주었다.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서 주권적인 사랑을 나타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베냐민에게 다섯 배의 음식을 주었어도 형제들이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 때문에 종이 되려고 하였다(44:13).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낼 선물을 수나귀 열 필에 실었고 여행에 필요한 곡식과 떡과 양식을 암나귀 열 필에 실어서 보냈다. 요셉이 보낸 이런 선물은 요셉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2) 노중에서 다투지 마소서 (45:24)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형들이 서로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한 말이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한 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그들이 요셉이 살아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려면 그들이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판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22년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던 그들의 죄가 아버지 야곱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때 일을 놓고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느라 다툴 수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자신들의 죄가 생 각나는 상황이 되자 요셉 앞에서 그 일을 놓고 서로 다투는 적이 있었다(42:22). 르우벤과 유다가 서로 책임을 따졌지만 사실은 오십보백보의 차이다. 이들에게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면서도 서로 책임을 묻고 따지며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요셉은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였다. 그때에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들먹이며 말하지도 않았고, 또한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른 채하고 넘어가지도 않았다. 그의 말에는 넘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다. 그가 한 말의 여백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 있다. 그는 자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 형제들의 죄를 덮었으므로 형제들도 서로 용서하고 다투지 않아야 함을 매우 적절하게 전달한 것이다. 요셉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였다(마 5:9).

3) 야곱의 반응 (45:25-28)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하고 이야기하자 야곱은 정신이 혼미하여졌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암시한 아들이 자신을 22년이나 속인 것이 되므로 이것도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가 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였다(27절).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과, 그것이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나가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확증하는 수레를 보고서 그의 기운이 돌아왔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죽하도다” 하고 말하였다. 물론 아들들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죽하도다”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을 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들이 전에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믿게끔 유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사실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죽하도다” 하는 말로 아들들의 잘못을 덮고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야곱도 자기의 편애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들들의 죄도 덮고 나간 것이다.

목상과 실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참된 화해

하나님께서서는 한편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의 죄를 지적해 내고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 사이에서 내적으로 회복되도록 하셨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본 다음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혔다. 형제들이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불화하는 가운데 있다면 자신을 알리는 것이 그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제거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극복된 것을 시험을 통해 확증했을 때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렸다.

요셉이 자신을 알릴 때 혈육의 정을 표현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강조와 그에 대한 순종을 볼 수 있다. 요셉의 말에 따르면 요셉을 애굽에 보낸 자는 그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보다 먼저 보내셨는데 이것은 언약이 있는 야곱의 집안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자신은 개인적인 원한을 표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였다.

1.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신 것을 본다. 첫째는 야곱 집안의 편애와 시기와 죄를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신 것이다.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들을 나라로 세우시려는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셉의 “싸우지 마소서”라는 말과 야곱의 “죽하도다”는 말로 암시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기억도 하지 않음을 잘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심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즉 구약의 교회에 행하신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진리이다. 주께서는 교회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이 거룩하게 될 때에 외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 야곱의 집안이 이주하기 전에 죄의 문제가 풀렸다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주제이다.

2.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화해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였다. 그의 위로의 말은 인간적인 용서와 위로의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화해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분석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시고 사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서 사람은 잠잠하고 지나간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를 맺으며 나아간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 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으면 사람은 잠잠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함께 찬송해야 한다.

요셉이 언약의 관점에서 형제를 대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다른 교인들을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세상에서는 개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한다. 나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홀하게 대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서로 화목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난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마 20:10 이하).

3.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행하신 일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졌다. 인간의 부족과 죄악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행 2:23; 4:2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언약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롬 8:28). 모든 것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롬 8:31).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과 바로도 사용하고 사람의 완고한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언약의 실체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 역사도 사용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조정하실 것이다. 경제적인 침체나 사회적인 불안도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있는 교회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45장 익힘 문제

1. 유다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아버지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요셉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절)
2.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5, 7절)
3. 요셉과 형제는 헤어진 지 몇 년 만에 만난 것입니까? (6절)
4. 야곱과 남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가나안으로 가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당부한 말은 무엇입니까? (24절)
5.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8절)